

언론 사람

2018
vol.212

02

04

인터뷰

앵커 송지현

07

언론법 이모저모

유명해지면 생기는 권리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한솔그룹의 뮤지엄 SAN



ANCHOR





글 · 사진 |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남잉글랜드의 바닷새

남잉글랜드 페인튼 해안. 공중전화 부스는 갈매기들의 휴게소다.

e-mail + text + phone 현대 인간이 사용하는 통신수단들과 바닷새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룬다.

아주 오래전부터 옛사람들은 새의 귀소본능을 이용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아왔다.

이른바 전서구(傳書鳩)는 2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이용됐다.

왜소한 인간이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들을 제치고, 지구 상의 주인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눈부신 통신혁명은 호모사피엔스가 수만 년 동안 쌓아 온 기술을 훨씬 능가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우리네 삶의 질이 올라간 건 아니다.

오히려, 업무량이 줄지 않고 늘어난 건 아이러니다.

CONTENTS

2018 February
Vol.212



언론+



사람+

02 Close-Up
남양골랜드의 바닷새

04 인터뷰
앵커 송지현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06 데이터 읽어주는 기자
가상화폐 보도 타임라인
들여다보니... '가짜' 부추긴 언론 잘못 없나

07 언론법 이모저모
유명해지면 생기는 권리

08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드라마 속 부자들

09 연중人
고래가 자라는 집,
古來輯(고래집)

10 세상읽기
결국은 남이었던 거다

11 푸드텔링
초콜릿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한솔그룹의 뮤지엄 SAN

15 따뜻한 아이디어
불을 밝혀주는 신기한 축구공
소켓볼 (Socket Ball)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권오근 | 발행일 2018년 2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
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경청이 있는 곳에 생겨나는 소통과 여유

1979년 이후 한 때 공백기를 제외하고도
35년여 세월을 마이크 앞에 앉아 대중들과 대화하며
세상의 변화를 전해 온 명앵커 송지현.
소통과 조율의 달인에게
갈등의 간극을 좁히는 노하우를 물어본다.

Q | 대학시절 연극부 단원, 무역회사 직원, 개인사업, 스피치컨설팅 및 영상 제작사 대표 등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력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어렸을 때부터 워낙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진학 후 교통사고가 났어요. 1년 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만큼 큰 사고였지요.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들어간 연극반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으로 3년을 보내다가 동아방송 공채 아나운서직에 합격해 대중 앞에 서게 되었지요. 1980년 방송통폐합으로 KBS로 옮겨왔으나 이후 시대적인 상황으로 방송 환경이 녹록지 못했고 결국 1987년 사표를 제출하고 그 해 7월 아르헨티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뉴욕에서 4년여를 개인사업을 하며 보내다 1991년 개국한 SBS에서 함께 방송하자는 제의가 들어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복귀는 SBS가 아닌 KBS의 <전국은 지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몸담았던 KBS 선배들의 환영과 배려 덕분이었지요. 그때의 고마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후 27년 동안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살고 있어요.

Q | 방송인 경력을 포함해 이제까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영역은 무엇인가요?

A | 이 세상에 보람 없는 일은 없지요. 모든 직업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열정, 적성과 능력이 준비되고 필요가 있어 선택받은 일이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취감도 클 것입니다. 저에게는 방송 일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었지요. 방송은 보람된 일이지만 위험도 큰 직업이

라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커다란 고비가 있었는데, 2004년 암으로 간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 방송 일이 없어 가족들과 아이스크림 가게를 4년쯤 했어요. 집사람이 가게를 맡고 저는 배달을 다녔지요. 배달 온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고객들 중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환자들도 있어 제 투병 이야기가 힘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송국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세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다양한 경험이나 시련이 뉴스를 진행하는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Q | 인터넷, 모바일로 인해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대한 시청자들의 태도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중의 변화한 뉴스 소비방식을 실감하는지요?

A | 이제 시청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뉴스를 재생산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전달해 방송을 리드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선택하고 전달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인간 뇌세포의 98%를 말이 지배하고, 감정의 95%도 말이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설렁거름(舌 朶於 劍), 즉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는 경구도 있습니다.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요즘, 우리 모두가 언어 선택에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혼돈의 사회로 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Q | 시사·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 저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나 불만들이 부딪

하고 또 화해하는 ‘공개된 카타르시스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시사·토론 진행자를 중재자(moderator)라고 부릅니다. 첨예한 충돌을 대화를 통해 완화하고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역할하기 때문이지요.

진행자는 토론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연자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경계해야 합니다. 대선 토론의 달인, PBS 방송 앵커 짐 레라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항상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어야 한다. 주인공은 출연자다.” 진행자의 편견이 앞서서는 안 되죠.

Q | 앵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앵커님은 쟁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기보다는 상대가 편하게 속내를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출연자들을 대하는지요?

A | 앵커의 역할은 단어 그 자체입니다. 다양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출연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평등하게 대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방송 경험이 없는 출연자들은 긴장하고 다소 날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자를 존중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기다려주면 마음의 빗장을 푸는 순간이 옵니다. 출연자의 주장이 빛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적절히 장단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적절한 반박 질문을 던져 출연자의 주장을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사실 저 역시 경청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연자가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대답이 너무 짧으면 어떡하지?’ 늘 마음이 조금 했고, 원고만 쳐다보며 다음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죽을 고비도 넘겨보니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와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질문자가 아닌 상대방의 말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Q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반론보도를 시청자들에게 전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정·반론보도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 항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틀에 박힌 내용을 건조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식의 정정보도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느낌이었을까요? 죽은 활자, 죽은 목소리인 것만 같고 결국 시청자들에게 대한 전달효과 역시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은 잘못에 대한 지적을 부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분쟁 해결과정 역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언론의 최초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문제의 보도로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나아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등 분쟁과



앵커
송지현

정을 스토리로 엮어 새로운 뉴스로 만들어 보도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조정·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과정은 극단으로 치닫는 현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Q | 시사·토론 진행자는 팽팽하게 맞서는 주장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언론사와 피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율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중재위원의 역할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을 완화하고 타협에 이르게 하는 앵커님만의 노하우가 있을지요?

A | 허준의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即不痛 不通即痛)이란 말이 있지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행자의 몫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는 나 자신부터 그리고 상대를, 또 우리 모두를 용서해야 희망의 내일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한 언론사와 피해자 모두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 우선 상대방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갈등 조정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후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다 보면 원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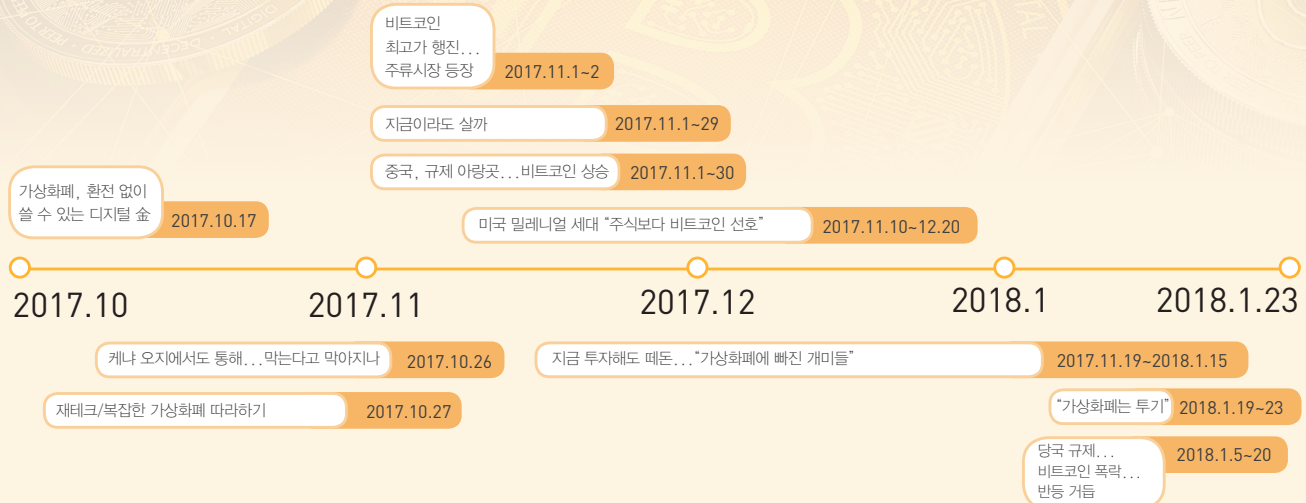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한 사회나 민족의 역사에서, 사회 발전의 계기가 일어나고 활성화되는 시기가 절정기 사회(peak society)라고 말했지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작은 영웅들이 많아질 때 사회는 절정기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매번 절정기 사회를 향해 깃발을 드는 심정으로 앵커 자리에 앉습니다.

- 1979 동아방송 아나운서
- 1980 KBS 아나운서 <성공시대> <추적60분> <생방송 심야토론> 외 다수 진행
- 17대 대선후보 토론회 사회
- 2013. 6~ MBN 뉴스와이드 진행

가상화폐 보도 타임라인 들여다보니...

‘가즈아’ 부추긴 언론 잘못 없나

김양순 |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가상화폐 보도 타임라인으로 본 프레임 변화〉 2017.10 ~ 2018.1.20

“새해에는 모두 부자 되세요~” 돈을 많이 벌라며 새해 덕담을 빌어주던 광고가 히트 친 적이 있었다. 카드사 광고였다. 돈을 드러내 놓고 소망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참시였다. 곧 ‘돈’은 우리의 소망이 됐다. 연말연시 삼삼오오 모인 대화에는 코인이 빠지지 않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같았다.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정부의 규제 신호가 분명해지자 암호화폐를 거래하던 장은 폭락했다. 젊은이들이 한강 다리에 줄 서 있는 사진들이 등장했다. 애당초 가치가 규정된 화폐였다면 규제 움직임에 폭락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언론은 떠들었다. 비트코인에 열을 올린 사람들은 순간 투기꾼으로 전락했다. 투자자의 60%가 20대와 30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대학 등록금을, 원룸 보증금을 날린 청년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던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로 매도됐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뤄졌었던가? 해당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지면과 방송에 등장한 지난해 10월부터의 기사들을 뽑아봤다. 언론진흥재단 빅인즈 시스템(조선, 중앙, 동아 제외)에서 추출된 비트코인 관련 문장은 모두 10,558개로 집계됐다. 이 문장들에 주로 쓰인 명사와 동사를 보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언론의 틀짓기, 이른바 프레임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시작은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이었다. ‘환전 없이 쓸 수 있는 금(金)’이라거나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서도 쓸 수 있는 디지털 신기술’이라는 찬사가 줄을 이었다. 2017년 11월에 이르자 본격적으로 상승세에 대한 경마식 보도가 이어졌다. ‘연일 최고가 행진’, ‘질주 어디까지...’ 등 너나 할 것 없이 대다수 언론사에서 얼마가 올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를 재테크 코너에서 다루기도 하고, A to Z도 나왔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비트코인이 강세고, 시카고에서는 주류 시장에 등장했으며, 한국만 유독 투기를 의심 한다는 기사들도 이때 쏟아졌다.

가상화폐 시장에 개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언론의 부추김이 절정에 다다르기 시작한 11월 중순이다. 개미 폭락, 거품, 위험 등의 단어들 이 등장하기 시작한 12월에도 여전히 언론 보도의 대세는 ‘가즈아’였다. 주로 경제신문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동아줄을 끌어댔다.

‘비트코인 받는 가게 급증’ ‘투자 귀재 피터 털도 샀다’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거래 속속 체결’까지. 정부가 규제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일부 언론의 부추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한 종편채널의 토폰 이후 언론보도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의 미래에 다소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학습 없이 경마식 보도에 매달리며, ‘가즈아!’라고 외친 행적은 지울 수 없다.

유명해지면 생기는 권리

김주연 | 변호사



최근 개그맨 김기리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받아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고주가 약속한 계약 기간이 아닌데 광고를 내보낸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기리게 손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문제가 초상권 침해인지, 아니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비슷한 사안을 하나 더 들어보자. 배우 송혜교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속에서 착용했던 귀걸이가 대중의 인기를 얻자, 인터넷 쇼핑몰들이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송혜교가 귀걸이를 착용한 드라마의 스틸 사진과 함께 제품을 광고하였다. 쇼핑몰 운영자들이 광고 계약 없이 송혜교 사진을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 이용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리나라 법률이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고,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했으므로 초상권 등 침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100만 원을 송혜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면, 초상권이란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이나 신체 등을 찍거나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초상권은 전통적으로 인격권의 범주에 들며, 기본적으로는 사생활의 침범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한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어떤 사람의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은 어떤가. 그들은 어느 정도의 미디어 노출을 감수하는 직업이다. 초상권이나 사생활도 일반인에 비해 덜 보호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얼굴, 목소리 등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더구나 대중들은 스타들이 입는 옷,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눈여겨보고 모방한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발달할수록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 불리는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생각해 냈고, 판례법으로 정착이 되었다.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등번호와 이름을 차용한 광고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105억 원 손해배상을 받기도 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상품화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이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이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송혜교 귀걸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에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됐다면 그녀는 광고료에 준하는 배상금액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격권 침해로 보았기 때문에, '그녀도 예쁘고 귀걸이도 예쁘다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닐까.

퍼블리시티권은 종국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땅에 씨를 뿌리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다면 말이다. 누구든 자신에 관한 것을 상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가 인간적인 사회일 것이다. 다만 권리 보호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가령, 개인적으로는 키워드 검색 광고(연예인 'OOO티셔츠', 'OOO모자')까지 퍼블리시티권(성명권) 침해로 보는 것은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과도하게 막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평범한 우리는 다들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며 살고, 가끔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멀리 보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우리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타인의 어깨를 모두 치워버린다면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지 않을까.

드라마 속 부자들

유선주 | 드라마평론가



출처 | MBC드라마 <돈꽃>

비율로 따지자면 인구의 절반은 재벌가 출신이 아닐까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드라마 속 세상의 얘기죠. 어쩔 그렇게 곤란한 상황마다 우연히 잘도 만날까요? 아마 잘 만나게 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재벌은 유용하니까요. 드라마 속에서 말입니다. 로맨스 드라마는 주로 사랑을 위해 재산이나 상속을 포기하는 인물들 통해 사랑의 가치를 드룹니다. 복수극에선 돈을 거머쥔 자의 권능이 복수를 결심하는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되어 복수를 돕기도 합니다.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을 다룰 때도 꼭 재벌가의 상속이 얹혀있습니다. 극 바깥으로 보자면 제작지원이나 협찬, 광고를 끌어오는데도 재벌 설정은 역시 유용합니다. 많은 사람의 선망이 고인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MBC <돈꽃>은 대기업 창업자 일족이 경영권과 상속을 놓고 싸우는 기업드라마에 복수와 신분 찾기를 더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돈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살지만 실은 돈에 먹혀버린 이들’이라는 기획의도에 눈이 가는데요. 돈에 먹히기 이전에 금을 먹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청아그룹’ 재단 이사장 정말란(이미숙)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심복 강필주(장혁)에게 두부를 건넵니다. “금 두부다. 남기지 말고.” 은쟁반에 올린 모두부에 금가루까지 손수 뿌려주는 이 장면은 황당하게 느껴지는 한편, 가능하기 어려운 부자들의 심상을 단번에 이미지화합니다. 한 병에 5만 원인 식용금박을 후하게 뿌려서 한 5천 원어치쯤 되겠다 싶은, 원가를 따지면 사실 별거 아닌 사치인데요. 나라를 위해 일하면 반드시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가치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정말란이 출소한 사람에게 두부를 먹이는 민간 풍습에 우스꽝스러운 격식을 더해 존재감을 뽐낸다면, 극 중 가장 많은 돈을 쥐고 있는 청아그룹 명예회장 장국환(이순재)은 세간의 격식을 허무는 것으로 힘을 과시합니다. 사돈댁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 미리 준비한 한식 정찬을 물리고 김치말이 국수를 들이대는 장국환의 지시에 큰머리 정말란은 “중요한 손님 초대해 달랑 국수 한 그릇 대접하면서 ‘우리네는 잔치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이렇게 소박하게 먹는다’는 엉뚱한 시위를 하고 싶은 거”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극 중 수십조의 부를 가지고 다투는 이들이 드라마 제작비를 받기 위해 매회 협찬사의 안마의자에 앉아 ‘피로가 풀린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도 폭 잔 거 같다’ 따위의 정해진 대사를 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피식 웃음이 납니다. 2013년에 방영한 SBS <상속자들>에서는 스포츠 의류회사 대표가 골프웨어 신

상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렁크 쇼는 극소수의 귀족들에게 트렁크를 열어 제품을 보여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귀족 아닐까요?” 이 시대의 귀족 역시 간접광고 상품을 홍보해야 합니다.

대놓고 유사 귀족 행세를 하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구시대의 신분제에 얽매인 재벌 캐릭터를 놀리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KBS <저글러스>의 ‘Y그룹’ 회장은 계열사인 ‘채널Y’에서 그룹의 비리를 보도하자 문중 사람들이 모두 모인 한옥으로 보도국장 남치원(최다니엘)을 불러들입니다. ‘식구끼리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는 압박에 남치원은 다시 이런 자리에 불러내면 진짜 특종을 내보내겠다고 맞섭니다. “왜 그룹명이 YB인지 특집 한번 태워드릴까요?” 똥지게 지던 머슴 집안에서 콤플렉스를 벗자고 ‘양반상회’라는 간판을 달고 쌀장사를 했던 것이 그룹의 전신이라는 거죠. YB는 양반의 약자였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재벌 캐릭터가 없지 않지만, 사회적 인식에 따라 드라마 속 부자의 상도 달라집니다. 창업주의 2세에게 당연한 듯 회사를 물려주던 드라마들은 이제 대기업 오너일가의 특권 논란이나 3세 경영의 문제를 극에 반영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신화가 깨진 세상에서 드라마는 돈을 번 수단을 캐물고 파헤치기도 하죠. 시절을 생각하면, 가상화폐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드라마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돈꽃> 속 금두부

고래가 자라는 집, 古來輯(고래집)

이정희 | 교육운영팀 차장대우

쿵! 머리가 울리는 느낌이었다.

아이를 낳고 종일 기저귀를 갈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느라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고, 통증을 잊으려 TV를 무음으로 틀어놓고 멍하니 보던 나날이었다. 우연히 다큐 한 편을 봤다. 도심에 작은 집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 거실 한쪽에 TV, 맞은편에 소파를 두는 식의 획일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의 단상,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브랜드와 동네만 가지고 분양되는 현실에서 건설사가 공간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치열하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거기 담겨있었다. 결심은 어렵지 않았다. 남편과 다큐를 다시 본 후 둘 다 아파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됐다. 집을 짓자, 우리 삶이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작은 집을.

그렇게 우리는 경량목구조 협소주택인 고래집(古來輯)을 짓게 되었다. 고래집은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과 재개발이 완료된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지은, 옛것과 새것이 함께 모이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건축자재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기도 하며, 고래 초음파 소리로 우는 목청 큰 아이의 별명이기도 하고,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 있는 집', 또는 '작지만 고래등 같은 집'이며, 나와 남편이 좋아하는 책 '오래된 미래'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가 상상한 구체적인 모습은 ①서재라는 갇힌 공간 말고 사방에 책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집 ②아이가 숨바꼭질하기 좋은 집 ③공간의 구분이 모호한 집이었다.

그 상상이 현실화되기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각종 자료를 섭렵하며 기초지식을 쌓은 것이 1년. 일본 번역서, 해외 사이트까지 시중의 자료는 전부 보았다. 두 번째로 서울 전역의 자투리땅을 보러 다닌 것이 6개월. 수많은 땅을 보고, 건축법과 지역 조례, 지적도를 비롯하여 수십 가지를 따졌다. 세 번째, 설계. 우리 감상으로 힘들다고 생각했던 유명 건축가와 연이 닿았다. 설계만 1년 가까이 걸렸는데, 머

◆ 고래집 내부 사진



릿속에 관념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도면으로 눈 앞에 펼쳐질 때의 짜릿하고 기분 좋은 울림이 있었다. 마지막, 시공. 기존 구조 철거에 3개월, 집을 올리는 데 3개월이 걸렸다. 전체 구조나 내·외장재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공정을 일일이 지정하는 지난한 과정에, 각종 민원은 덤으로 따라붙는다.

이렇게 완성된 고래집은 대지 27평, 바닥면적 13평의 작은 집이다. 스킵플로어로 설계, 층의 구분이 없어 보기에 따라 3층이다, 4층이다, 5층이다 의견이 분분하다. 평수도 따지기 어렵다. 아이방엔 사다리와 개구멍이 있다. 아빠의 공간은 비밀문으로 연결된다. 싱크대엔 책이 꽃혔다. 마당 데크의 뚜껑을 열면 모래놀이를 할 수 있다. 애초 상상한 대로 헛갈리고, 웃기고, 어이없는 공간이다. 아이가 책을 만지작거리며 놀다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음껏 뛰다가, 숨었다가, 빼악거리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가, 한순간 마당에 나가 내리는 눈을 만져보는 모습은 비현실적일 만큼 충만하고 여유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지인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 "삶이 콘텐츠라면 집은 그 콘텐츠를 담는 미디어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을 현재의 집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기를 감히 제안해본다.

결국은 남이었던 거다

한기봉 |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국민대 초빙교수

오랜 숙제를 해치웠다. 휴대폰 연락처와 박스에 찻잎처럼 쌓아놓은 명함을 정리한 것이다. 마치 인간관계를 칼처럼 자르고 사람을 용도폐기하는 것만 같아서 매년 미뤄오던 일이다. 평생 기자를 해서 생긴 버릇이지만 나는 뭐든 잘 버리지 못했다. 명함을 받으면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휴대폰에 입력하고 종이명함은 차곡차곡 보관했다. 만난 날짜와 장소, 만남의 경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메모를 해놓아야 안심이 됐다.

장롱 구석과 창고에 있는 명함 상자를 다 꺼냈다. 이사 다닐 때마다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 끌고 다닌 것들이다. 30여 년 전에 받은 명함까지 있다. 명함 주인을 기억해 본다. 지금은 장관님이나 의원님이 된 분들의 소신했던 명함도 보인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의 것도 있다. 오랜 세월 잊고 있었지만 다시 만나고픈 반가운 사람도 있다. 여성의 명함에는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해저 보물을 인양하듯 명함을 추렸다. 그런데 명함의 주인공들은 3분의 2 이상 내 기억 세포에서 딜리트되었거나 가물 가물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대범해지기로 했다. 서로에게 운명 같은 인연이라면 누가 먼저든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만나겠지. 가위를 꺼내 들었다. 9X4cm의 종이 한 장으로만 남아있던 관계는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두 번째 휴대폰의 연락처 정리. 사실 휴대폰이 생긴 후 일은 두 배로 늘었다. 휴대폰이 곧 명함첩을 대신하게 됐으니까. 휴대폰에도 관계 별, 용도 별로 꼼꼼히 번호를 저장하고 메모란에는 별도로 정보를 기입했다.

연락처를 휴대폰에 꼭 입력해 놓은 건 전화가 왔을 때,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 실례를 범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인맥관리 노하우이기도 했다. 상대는 기대를 안 했는데도 “아 000씨”라

고 아는 체를 하면 훨씬 좋은 인상을 주거나 일이 잘 풀리는 건 인지상정이니까.

한 명씩 번호를 지워가면서 괜한 짓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번호가 남아있다고 해도 손해 볼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기억조차 없는 사람도 많았다. 이름과 얼굴은 알아도 1년에 단 한 번도 통화한 일이 없던 사람이 절반을 훨씬 넘는 거 같다. 1년은커녕 평생 통화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안 입는 옷을 행여나 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넣고 꺼내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욕심이었다. 휴대폰이 한결 가벼워졌다. 전화번호로만 존재했던 관계의 유효기한도 이렇게 종료됐다.

나는 인맥이 곧 스펙인 사회에서 살아왔다. 학연, 지연, 혈연, 업연,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흡연까지 인연을 강조했다.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다. 마당발은 곧 인품이었고 경쟁력이었다. 혼자 밥 먹으면 사회 낙오자로, 혼자 술집에 앉아있으면 무언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던 시대였다.

꼭 시대와 가치가 변해서라기보다는 관계 맺기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었다. 이게 이른바 관태기(關怠期)라는 것일까. 아니면? 나이를 먹은 탓일까. 다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도 손 좀 봐야겠다.

‘던바의 수(Dunbar’s number)’라는 용어가 있다.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던바 옥스퍼드대 교수가 인류학적 문헌을 통해 면밀하게 연구한 결과, 인간의 인지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교류의 한계는 150명이라는 이론이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타인 지향적 삶을 살았구나. 나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소중히 생각한 거였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였다. 나도 그랬던 것처럼.



초콜릿

이용재 | 음식 평론가

2월의 음식은 아무래도 초콜릿이다. 물론 발렌타인데이는 상술이다. 하지만 이런 날을 기회 삼아 초콜릿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카카오나무 경작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1,100년부터 존재한다. 멕시코와 중앙 및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재배했는데, 지금처럼 설탕을 더하지도, 납작한 판때기 모양으로 굳혀 먹지도 않았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에 걸맞게 씹쓸한 약용의, 걸쭉한 음료였다. 초콜릿이라는 이름 또한 지역 원주민 '나와틀(Nahuatl)'족의 '쓴 물'이라는 말 'xocolatl'에서 비롯되었다. 흔히 초콜릿을 디저트라 여기지만 설탕이 빠진 초콜릿은 끼니를 위한 음식에도 잘 어울린다. 대표적인 예가 멕시코의 전통 음식이자 초콜릿 향신료 소스인 '몰레(mole)'다.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초콜릿=단맛'이라는 선입견 때문인데, 사실 초콜릿 자체는 달지 않다. 원재료인 카카오콩은 되려 떫고 쓴맛이 강하니, 가공과정에서 균형을 잡아 주느라 설탕을 더한다. 초콜릿의 가공과정은 축구처럼 전후반으로 나뉘는데, 전반전에서는 카카오콩을 초콜릿의 원료로 만든다. 카카오 콩각지(pod)에 든 콩(bean)과 콩을 둘러싼 섬유질(pulp)을 함께 발효시킨다. 그러면 콩에서 과육(nib)을 발라낼 수 있는 상태가 되니, 발라낸 과육을 롤러(roller)에 압착하면 코코아 액(cocoa liquor)이 되고, 이를 체로 걸러 코코아 고형분(cocoa solids)과 지방인 코코아 버터를 분리하면 우리가 아는 초콜릿의 원료가 된다.

전반전에서 초콜릿의 가공성을 확보한다면 후반전에서는 맛과 식감을 향상시킨다. 코코아 액을 굳히면 초콜릿이 되지만 떫고 쓴데다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움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후반전에서 설탕이나 유고형분(乳固形粉, milk solids), 코코아 버터 등을 더해 균형을 잡아준다. 밀크, 다크, 화이트 초콜릿 등도 이때 걸린다. 코코아 액보다 설탕이나 유고형분 등의 부재료를 더 많이 쓴 밀크 초콜릿이 단맛도 강하고 살이 찌 가능성도 더 높다. 요즘은 유고형분, 즉 유지방 대신 팜

유 등의 식물성 지방을 쓴 초콜릿이 많은데, 뽀뽀하고 입에서 부드럽게 녹지도 않는다. 따라서 마트나 드럭스토어 등에서 밀크 초콜릿을 고른다면 유지방만 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크 초콜릿'은 대개 코코아 고형분과 설탕만으로 만든다. '70% 다크 초콜릿'이라면 코코아 고형분+버터:설탕의 비율이 70:30이라는 의미다. 제조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세미스 스위트(semisweet)' '비터스 스위트(bittersweet)' 등, 맛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 형용사를 붙이므로 참고한다. 다만 초콜릿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신맛도 강해지고 부드러움도 떨어진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맛을 찾는다면 60% 이하, 성격이 뚜렷한 걸 원한다면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초콜릿(white chocolate)'은 코코아 고형분 없이 코코아 버터에 설탕이나 바닐라향 등의 부재료만 더해 만든다. 부드럽지만 초콜릿 특유의 향은 없다.

천천히 녹여 음미해야 코코아 버터의 부드러움에 둘러싸인 초콜릿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20도 내외의 실온에 두었다가 적당한 크기로 잘라 입에서 그대로 녹인다. 다크 초콜릿은 발효 덕분에 화사한 신맛을 기본적으로 갖추며, 와인이나 커피처럼 과일향 또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신맛이나 비슷한 향을 지닌 음료가 잘 어울린다. 대표적인 짝이 커피다. 중간에서 강하게 볶은 콩을 드립이나 아메리카노로 곁들인다. 마데이라와 포트(둘 다 포르투갈), 셰리(스페인) 등 주정을 더해 도수를 올린 강화 포도주(fortified wine)나 흑맥주(stout)도 좋다. 비슷한 향을 한데 엮어주는 원리다. 한편 싱글 몰트 위스키도 훌륭한 짝이다. 초콜릿과 위스키가 각각 지니고 있는 복잡한 향이 서로 잘 어우러지는 것은 물론, 맛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방인 코코아 버터가 위스키의 향에 명석을 깔아줘 여운을 오래 음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꽃, 물, 빛 어우러진 ‘치유와 사색’의 공간, 하늘과 맞닿았네

이영란 | 미술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아시아 건축가로는 기념비적 건축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맡아온 안도 타다오(Ando Tadao, 77)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90) 초청으로 강원도 원주를 찾은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안도는 “미술관 건립부지에 처음 섰을 때 길게 이어지는 산 정상이 독특했어요. 이 곳에 별천지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렘이었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뮤지엄 산(SAN: Space Art Nature)’을 위한 스케치가 완성됐습니다. 한솔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국내 1세대 여성 컬렉터인 이인희 고문의 필생의 컬렉션을 선보일 미술관을 한솔은 2010년 초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전시관인 제임스 터렐관(館) 건립이 늦어지며 2013년 5월에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주년을 맞은 원주의 뮤지엄 산은 작년 말, 누적 관람객 60만 4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건축가 자신도 ‘산속 미술관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오리라 생각 못했다’며 반색했다네요. 안도의 팬이라면, 또 예술 애호가라면 반드시 찾아야 할 명소로 자리매김한 거죠. 경기도 광주와 원주를 잇는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가 2016년 말 개통

되며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뮤지엄 산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연달아 선정된 것은 물론이고, 영국의 파인앤설타임즈로부터 ‘어디에도 없는 꿈의 뮤지엄’이란 찬사를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매거진 ‘Artling’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뮤지엄’으로 꼽았고요. 이 같은 호평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에 ‘물, 건축, 예술’이 어우러졌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또 ‘빛과 공간의 예술가’인 제임스 터렐의 최신 전시관도 한몫했지요.

안도는 일본 나오시마 섬의 지추미술관 등에서 보여주었던 자연과 부드럽게 합일(合一)되는 뮤지엄을 제안했습니다. 뮤지엄 산은 입구의 웰컴센터를 지나 오솔길을 제법 걸어 들어가야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나 여기 있소”하며 건물이 위용을 떨치는 게 아니라, 산자락 속에 살포시 숨어있는 거죠.

원주시 지정면 해발 275m에 세워진 뮤지엄 산은 대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예술과 호흡하는 전원형 미술관입니다. 부지가 서울 남산(262m) 보다 높는데 ‘리지엄(RE-SEUM:

Resort&Museum)’이란 용어도 채택했네요. 오크밸리 내에 자리 잡고 있으니 ‘리지엄’이라 할 만합니다. 부지는 2만 1780평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비슷하고, 국내 사립미술관 중에는 가장 큼니다.

뮤지엄 산은 봄부터 여름까지 미술관 초입 플라워가든에 심은 80만 송이의 패랭이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룹니다. 푸른 하늘과 붉은 꽃 천지 사이에, 마크 디 수베로의 주홍빛 대형 조각이 살랑살랑 움직이며 관람객에게 인사를 건네지요. 한겨울에는 흰 눈발에 조각이 외롭게 서 있는데 이 또한 멋집니다.

뮤지엄 산은 ‘소통을 위한 단절(disconnect to connect)’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오광수 관장은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때로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낮익은 것들로부터 잠시 떨어져 자연과 예술을 온전히 느껴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제지기업답게 뮤지엄 산은 국내외 유명작가의 종이작업을 두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인희 고문은 컬렉션의 지향점을 종이 작업에 두고, 수십 년간 이에 집중했지요. 그 결

과 미술관의 성격이 뚜렷해졌습니다. 유명작가 작품을 맥락 없이 사들이기보다, 종이를 기반으로 한 회화와 조각, 판화를 컬렉션 한 거지요. 물론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헨리 무어와 자코메티의 조각 등도 수집해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뮤지엄 산은 전주에 설립했던 국내 최초의 중 이박물관을 ‘페이퍼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옮겨 왔습니다. 종이로 된 국보급 문화재와 공예품이 망라돼 종이의 역사를 살필 수 있지요. 여기에 김환기 박수근 문신 정규 이우환 등 한국 근현대미술을 선보이는 청조갤러리, ‘빛의 공간’ 제임스 터렐관이 곁들여졌습니다. 다양한 체험공간도 조성했지요.

뮤지엄 산은 관람 동선이 2km가 넘어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둘러보는 게 좋습니다. 길게 뻗은 산세를 그대로 살려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본관, 스톤가든, 제임스 터렐관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여성 관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자작 나무길을 지나면 워터가든이 멋진 정경을 뽐냅니다. 알렉산더 리버만의 강렬한 철제조각이 물 위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칠랑이는 물에 붉은 조각이 투영돼 무척 근사합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인증샷 찍기에 바쁘네요. 플라워가든의 수베로 조각이 여성적이라면 워터가든의 리버만 조각은 남성적입니다. 음과 양, 유연함과 강인함의 대조라 할까요? 대형 조각을 맞춘 자리에 배치한 안목이 놀랍군요.

워터가든에 연결된 뮤지엄 본관은 수면 위에 육중한 성이 둥실 떠있는 형국입니다. 물과 돌의 조우입니다. ‘노출콘크리트의 미니멀 한 건축’으로 유명한 안도는 본관 외벽을 주황빛 파주석으로 마감했습니다. 거친 질감의 파주석의 크기가 좀 커서 위압적인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BOX IN BOX’라는 컨셉 아래 사각형, 삼각형, 원형의 4개 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대지와 하늘을 사람으로 연결’하려는 건축가의 철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산상(山上)이라는 지형을 그대로 살린 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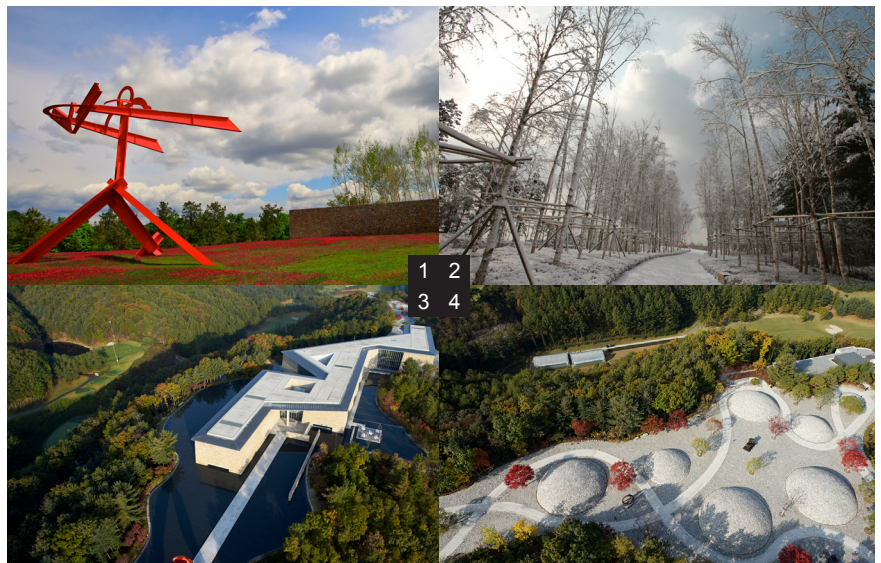
엄 산의 후원(後園)은 스톤가든입니다. 안도는 신라고분에서 받은 영감으로 9개의 커다란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대지미술인데 돌무덤 사이사이에 세계적 거장들의 조각을 배치했습니다. 무엇이든 손으로 만드느 걸 좋아했던 안도는 공고에 다니다가 쌍둥이 동생과 함께 프로복서로 활동하기도 했지요. 등하곳길에 거리의 목공소, 철공소, 신사를 골똘히 관찰했던 그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세계를 다룬 종교책을 접하면서 건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962년부터 7년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독학으로 건축을 익힌 그는 특유의 노출콘크리트 외벽으로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고전적 가치에 현대적 미감을 조화시켜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도의 스톤가든을 지나면 ‘성찰과 사색의 공간’인 제임스 터렐관이 나타납니다. 미술관에서 최고로 인기가 높은 곳이지요. ‘빛의 미술사’ 터렐의 대표작 5점을 체험해보는 전시관입니다. 둥글게 뚫린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자연의 빛과 작가가 만든 인공빛을 함께 음미하는 스카이스페이스, 빛의 산란으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간츠펠트(Ganzfeld), 허공에 빛의 장막이라는 환영을 만들어 보이는 웨지워크 등을 감상하게 됩니다. 나옴시마의 지추미술관도 터렐 작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20년 전 버전이라 비교가 안 됩니다. 작가 또한 ‘한솔의 전시관은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로지 터렐관을 목표로 원주를 찾는 해외 관람객이 많다고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해 질 녘 터렐관에선 일몰을 체험해보는 ‘컬러플 나이트’가 열립니다.

미술관을 모두 돌아봤다면 워터가든 위 카페 테라스에서 칠랑이는 물을 마주하며 차 한 잔 마실 시간입니다. 배우 공유가 드라마<도깨비>를 촬영해 유명해진 곳인데요, 주말엔 빈자리가 없다는군요.

국내에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뮤지엄은 제주에 두 곳이 더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본태박물관’과 휘닉스 제주 섬지코지의 ‘유민미술관’입니다. 또 여주시 능서면 마임 비전빌리지의 ‘마음의 교회’도 안도의 작품입니다. 초기 출세작인 오사카 ‘빛의 교회’를 본뜬, 차분하고 정갈한 교회랍니다.



- 1 봄꽃이 가득 핀 뮤지엄 산의 플라워가든
- 2 눈덮힌 자작나무숲길
- 3 하늘에서 내려다본 뮤지엄 산. 물과 건축, 조각이 하모니를 이룬다.
- 4 안도 타다오가 경주고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뮤지엄 산의 후원, 스톤가든

위 원 동 정

◆ 신임 중재위원 위촉

1월 16일자로 중재위원 1명이 위촉되었다.

중재부	성명	대표이력	임기
서울제2중재부	조성은	코컴퓨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장	2018. 1. 16. ~ 2021. 1. 15.

◆ 강문원 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강문원 중재위원(제주중재부, 강문원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월 1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 원 이상을 일시 후원하거나, 5년 내 분할하여 후원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했다. 강 위원은 2011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제주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 진형혜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집행부 사무총장 선임

진형혜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이 1월 15일 서울 서초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집행부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조현옥 변호사가 제10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여성아동인권상 및 공로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 주정민 위원, <유료방송 내 흡소핑 운영실태 진단 정책 세미나> 발제

주정민 중재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1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내 흡소핑 운영실태 진단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흡소핑 업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 위원은 '흡소핑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2018년도 대학생 연수 실시

◆ 2018년도 대학생 연수 실시 예정

교육운영팀이 2월 23일 대학생연수를 개최한다. 대학생 연수는 신문방송학과 학생 및 언론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일정	강좌명	강사
14:00 ~15:45	선배 언론인이 알려주는 언론 현장과 취재 방법	박건영 (채널A 탐사보도팀)
16:00 ~18:00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과 언론중재위원회	손정배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장)

문의 : 교육운영팀 T. 02-397-3092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접속 ⇒ 언론중재아카데미 ⇒ 분쟁해결전문연수 ⇒ 교육신청

언론사람 뉴스레터 구독

◆ 온라인에서 언론 사람을 만나보세요

언론중재위원회가 매월 위원회 소식, 언론법제 이슈, 문화 콘텐츠 등을 담아 발행하는 언론사람을 이메일, 모바일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 모바일 메시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접속
⇒ 정보자료실 ⇒ 정기간행물 ⇒ 언론사람 ⇒ 뉴스레터 신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검색
- QR코드 스캔





따뜻한 아이디어

Soccket Ball

불을 밝혀주는 신기한 축구공
소켓볼 (Soccket Ball)



전 세계 약 74억 명의 인구 가운데 1/4의 사람들이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캄캄한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 등유램프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유램프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등유가 타며 발생하는 독성이 담배 40개비 이상을 피우는 것과 같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희망의 불빛이 되어줄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만나 '소켓볼'이 탄생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 4명이 공학수업 프로젝트에서 만든 축구공, '소켓볼'은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공을 차며 만드는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이 대부분 공놀이를 하며 하루는 보낸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소켓볼로 신나게 공을 차면 3시간 정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전력개발로 전력난도 해소하고, 연료비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는 또 아이들의 놀거리가 되어주는 소켓볼은 전기와 빛이 없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디어, 거기에 즐거움까지 더해진 따뜻한 축구공 '소켓볼'입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다리

언론중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